“불교 호감, 불자수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

1면에서 이어짐

박람회 등에 MZ 참여 대폭 증가
선명상, 국민 평안 운동 추진 계획
“신심 키워 의미있는 변화 이끌 것”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마음 평안의 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캠페인의 성과와 봉축일정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서 진행된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의 성과도 공유됐다.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4일간 약 25만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5만명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다 관람객 기록을 경신했다. 관람객 가운데 MZ세대 비율은 81.7%, 무종교인은 약 40%로 집계됐다. 래퍼 우원재와 DJ 소다가 참여한 반야심경 공파티는 SNS와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서울 봉은사 일원에서 열린 ‘2026 국제선명상대회’는 이틀간 약 5만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 중 20~30대 비율은 55.9%를 차지했다. ‘AI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총 41개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마음처방전’ 프로그램은 대기줄이 있을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선명상의 보급 방향과 의미에 대해 진우 스님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데, 조계종이 명상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전체 명상 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간화선은 가장 높은 단계의 수행인 만큼,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방편으로 선명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선명상은 포교의 일환으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국민적 평안 운동이 될 수 있다”며 “5초 멈춤, 5분 명상처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이를 더욱 체계화해 학교와 기업, 각 기관 등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7명의 대선사가 차례로 법상에 올라 ‘간화선의 정수’를 설한 ‘세계 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담선대법회’에는 6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선의 지혜를 배우고 마음의 방향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두배 템플스테이’는 동시접속 가능 인원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접수 시작과 동시에 예약자가 몰리며 사이트가 일시 마비될 정도의 관심을 모았다.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선에 들고 구름에 눕다’도 선운사 금동지장보살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 콘텐츠가 주목받으며 기존 특별전 대비 3배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청년 무료공양 프로그램 ‘청년밥심’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 청년들의 식비 부담이 커진 현실과 맞물리며 올해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 사찰이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조계종은 향후 청년밥심 프로그램을 지역 사찰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아진 흐름이 문화 소비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신행과 포교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다. 진우 스님은 “힙한 불교와 문화 콘텐츠를 통해 인식 변화는 이뤄냈지만, 실제 이들을 불자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노력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전국 본말사를 중심으로 법회와 기도, 수행 등을 통해 신심을 키워내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마음 치유하는 선명상 공간”

진우 스님 국립공원공단서 법문
‘마음을 바로 세우는 선명상’ 주제
황룡사 9층 목탑 봉축등에 점등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립공원 보존과 안전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힐링 법문’을 설했다. 스님은 “국립공원은 감정을 떠나보내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치유의 공간”이라며 선명상을 통한 감정 조절과 내면의 안정을 당부했다. 강연에 참석한 직원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깊은 공감을 드러냈다.

진우 스님은 5월 6일 원주 국립공원공단 1층 대회의실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강연에는 국립공원공단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단의 전국 관리사무소 직원 2000여 명도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직원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조언을 건넸다. 스님은 “젊은 직원들 가운데 공허함과 적막함, 외로움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멘탈을 어떻게 잡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법문 취지를 밝혔다.

이어 괴로움의 근원이 지나치게 행복에 집착하는 ‘나의 마음’에 있음을 짚으며 감정 덩어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감정을 자제하는 ‘중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선명상’을 제시했다. 5초 멈춤, 5분 선명상, 방하착 등을 꾸준히 체득하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서서히 내려놓을 수 있고, 능력과 능률, 즉 지혜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진우 스님은 각자의 업무에 긍지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연간 4500만명이 국립공원을 찾는다”며 “국립공원을 가꾸는 일은 곧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남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다”며 “조금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가져달라”고 응원했다.

강연에 이어 공단 로비에서는 신라 경주 황룡사 9층 목탑을 모티브로 제작한 봉축등 점등식이 진행됐다. 봉축등은 향후 한 달간 공단 로비를 밝힐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연임 개헌 논의 ‘본격화’

기관장·종무원장 연석회의
원장 연임제 등 의견 청취
6월 10일 승려대회 보고도



태고종은 5월 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각급 기관장 및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지난해 불발된 ‘총무원장 연임제’ 개헌을 다시 추진한다.

태고종은 5월 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각급 기관장 및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도발안제를 통해 접수된 종헌·종법 제개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가장 많이 접수된 의견은 현재 단임으로 운용되는 총무원장 임기를 연임으로 전환하는 안이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개헌안은 총무원장의 임기를 현행 4년 단임제에서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정된 종헌은 즉시 준용되도록 했다.

태고종이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채택한 것은 2011년. 종단에 수십억원의 부채를 안겼다는 혐의로 전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멸빈 징계를 받자 당시 중앙종회는 제106회 회의에서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개헌했다. 총무원장의 장기 집권과 전횡을 막겠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4년 단임제는 총무원장의 권력을 분산하며 종단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그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적인 어젠다가 수반돼야 하는 종책과 종단 사업들의 부재다. 4년이라는 임기에 이루기 힘들고, 후임 원장의 종책으로 이어지지 않아 단절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연임제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개헌이 화합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오는 6월 10일 오후 1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열리는 승려연수교육 및 승려대회 계획도 공유됐다. 승려연수교육은 ‘한국불교 전통법맥 및 전통계승을 통한 태고종 위상 정립’을 주제로 진행되며,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승려대회는 전 종도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전통 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보이기 위해 추진된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에서 도출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해 종헌·종법 개정안을 면밀히 보완하고, 이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농협중앙회, 조계종에 자비나눔기금 기탁

진우 스님에 3000만원 전달
농협, “공익 활동에 힘써와”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농협중앙회는 5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매년 성금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 농협은 늘 종단에 큰 의지처가 되고 있다”고 인사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은 다른 기업보다 공익적 활동에 관심을 두고 힘써왔다”며 “지난해 경북·경남의 산불·호우 피해 복구에 371억을 지원했고, 현장 재해 복구 인원으로 1만 6000여 명 투입, 또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는 260만명의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서민과 농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농협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늘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위한 손길을 건네는 농협의 공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희 수습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